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20%미만으로 배출되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유실·유기 동물 입양자 지원 적극 추진

정읍시가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입양자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입양 가구에 물품과 지원금을 제공해 시민들의 입양 참여를 유도하고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입양자들에게는 반려동물 사료, 이동장 방석 등 필수 물품이 제공되며, 가구와 입양 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현재까지 총 70명의 입양자에게 지원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입양률을 높이는 동시에 보호소 내 유기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유실·유기 동물 보호와 시민 의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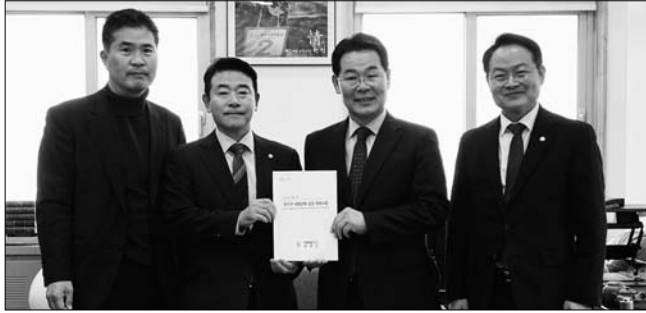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상임위원·예결위원 만나 어업위기 대응 등 적극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설득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1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예결위 간사, 조배숙 예결위 의원, 오세희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을 만나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협조를 구했다.

현재 부안군 주요 건의사업은 △어업위기 대응 대체소득원 개발(총사업비 300억), △격포 여객터미널 대체건립(총사업비 40억),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조성(총사업비 188억),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170억원),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역명의 전당 건립(총사업비 208억),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192억) 등이다.



특히, '어업위기 대응 대체소득원 개발'은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소득 저하 등에 따른 어업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업체험, 낚시, 해양치유, 해양테저 등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소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7일에도 국회를 찾아 이원택·이춘석·유동수·허영·안도걸·윤준병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국회 의결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동원해 주요 핵심사업 예산의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추운 겨울철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해요"

경로당 양곡 지원 대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경로당의 양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기존 천편일률적인 경로당별 동일 배분에서 벗어나 등록 회원수별 지원으로 어르신들 식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밀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량이 개선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경로당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운영비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경로당별 정부지원은 연간 2포에 불과했다. 군은 이웃돕기 기탁품으로 들어온 양곡을 지원하고 있던 했지만 회원이 많은 경로당의 경우는 어르신들 식사마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밀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량이 개선했다.

쓰고 남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경로당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운영비 부족을 겪어온 경로당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고창군은 윤준병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정부지원 개선을 건의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숙원이 해결되게 됐다.

고창군은 상·하반기 이웃돕기 기탁품으로 들어온 양곡 800포를 경로당에 지원했다.

냉방비는 전년 대비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특목히 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는 지금,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농업인대학,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가 지난 20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24년 농업인대학운영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전국의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부안군은 2023년 전국 농업인 교육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 농업인대학 운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

어 전문농업인 육성분야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올해로 20년차인 부안군 농업인대학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청년농부반, 군민정원사반, 농식품가공반) 3개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교육 요구 분석, 농업기술 진단 조사 실시, 다양한 형식체계로 강사 활용을 차별화 △군민정원사 양성과정을 통한 정원사 활동지원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차별

화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농촌진흥청 역량평가를 거쳐 3차 전국 발표 경연을 통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8월 부안군 농업인대학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도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가 정읍역 북쪽 광장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우수성 입증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서 '최우수' 등급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4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을 획득하며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관 운영, 사업계획, 사례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특히 사업계획 수립, 사업 수행 사례관리, 사업성과 등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 등급 달성을 계기로 센터는 정신건강 복

지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을 추진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순희경 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판들이 보내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며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와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역 북쪽광장 새 단장'

정읍시, 정비사업 마무리... 열린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정읍시가 정읍역 북쪽 광장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정읍역 광장의 환경 개선과 활용도 증대를 위해 진행됐으며, 총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노후화된 단풍나무를 철거·이식하고, 기존 동상을 재배치했으며, 새로운 바닥포장재를 설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광장은 대규모 행사와 문화공간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장소로 거듭났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정읍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경관 조성 등 정읍역 일대의 분위기를 개선



하는 사업과 더불어 광장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에게는 소통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정읍의 새로운 명소가 지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